

이혜원 기자 @dipsylee ▶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2012.07.12. 16:35  페이스북  트위터



홍경택, Library, 2011, 린넨에 아크릴 물감과 유채, 162x130 cm

6 개월간 뉴욕에서 거주하며 작업해온 작가들이 결과물을 공개한다.

두산갤러리 재개관 기념전 <리 오픈링 두산 갤러리 서울(RE-OPENING DOOSAN GALLERY SEOUL)>이 오는 7월 18일부터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된 두산 레지던시 뉴욕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에 참여한 14 명은 권오상, 김기라, 김인배, 김인숙, 민성식, 박윤영, 백승우, 성낙희, 이동욱, 이주요, 이형구, 정수진, 최우람, 홍경택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작가들이다.

두산갤러리는 2007년 개관 이후 국내 젊은 작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2009년부터는 현대미술의 메카 뉴욕 첼시에 갤러리와 레지던시를 열고 작품을 소개해 왔다. 두산 레지던시 뉴욕에서는 두산갤러리

전시 기회와 함께 6 개월 간 거주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제공했다.

뉴욕 스튜디오에서는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미술관 큐레이터, 평론가를 초청해 입주작가들의 작품 세계에 대해 논하는 ‘스튜디오 방문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밖에 미술 관계자들이 작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오픈스튜디오, 신진 작가들이 입주 작가들을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 등도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두산갤러리 관계자는 “지난 3 년간 운영된 두산 레지던시 뉴욕의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시는 8 월 19 일까지. (문의 02-708-5050)

[유니온프레스=이혜원 기자]



김인숙, Downers, 2012, c-프린트, 디아섹, 140x300 cm



정수진, Pyramid Dialectic, 2005-2011, 캔버스에 유채, 183x173 cm

< 저작권자©유니온프레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